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길 열렸다

공업용지 등 규제 완화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용적률·건폐율 상향 가능
특혜·무분별 개발 방지장치도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수년간 담보 상태에 놓인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사업이 정부의 새로운 규제개선 정책에 힘입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금호타이어 부지와 같은 공업용지도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조성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용도와 밀도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복합용도구역', 노후지역 내 기존도시계획시설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공간혁신구역 3종 세트'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광주시는 공업단지인 금호타이어 부지를 직접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도 자유롭게 설정해 해당 부지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율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처럼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공간혁신구역 지정 시에는 국토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도록 해 특혜 의혹이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갖추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해당 법을 시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공장 합병 이전 사업은 KTX 송정

역세권을 개발하려던 광주시는 물론 전기차용 타이어 생산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금호타이어 모두에게 시급한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개정 법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이 들어서 있는 광산구 송정동 일대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토계획법 개정안 통과로 금호타이어 부지 이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8월 "확실한 공장 이전 증명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강 시장은 당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따른 상업·주거 지역 용도변경은 공장을 폐쇄해야 가능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에서 성실한 이전 추진을 입증한다면 그전이라도 협상 절차에 들어가는 등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공장부지 매입을 검토하던 투자회사가 높은 땅값과 토지용도 변경 지연 등을 이유로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매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이전에 희망적인 소식은 이번 관련법 개정과 함께 금호타이어에서

지난해 35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영업이익도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 일각에서 우려해 온 중국자본인 금호타이어가 막대한 공장 매각자금만 챙기고, 신규 투자나 공공기여 약속 등에는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는 영업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부지 매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관련 논의가 멈춰선 상황"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매수 희망자만 나온다면 이전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금감원장 "ELS 판매경로 등 점검...제도 개선 검토"

하나은행, ELS 판매 전면 중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상품의 유형별 구

분, 적절한 판매경로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의 질

문을 받고 "이번 검사 결과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홍콩H지수 연계 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상

품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금융시장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했던 결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후 비예금상품위원회 승인을 얻어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KIA 김종국 감독 영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커피업체서 역대 금품수수 혐의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에 대한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8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감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4일 김 감독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정석 전 KIA 단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감독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두 사람의 구체적 범행 혐의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단장은 2022시즌 박동원(LG)과의 다년 계약 협상 시 뒷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단장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해 연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감독의 다른 배임수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감독이 한 커피업체 관계자에게 일부 선수 기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역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의 금품이 장 전 단장을 통해 김 감독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다.

KIA는 김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8일 감독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어 29일에는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품위손상행위'로 판단했다"며 김종국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0년 전통 '자산축구대회' 아시나요 ▶7면

다문화 동반 시대 열렸다 ▶18·19면

광주FC 이정호 감독 인터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